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업체 17곳 선정

수원시, 신뢰도·우수성 등 심의 결정
농축산물, 원데이 클래스 등 5개 분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 기대”

수원시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업체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17개 업체를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했고,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 캐릭터 상품 ▲원데이 클래스(일일 강좌) ▲공예품 등 5개 분야의 17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날 답례품선정위원회는 신청 업체의 기업 정작도·신뢰도, 운영·유통 관리, 지역 연계성, 정제상·우수성 등을 기준으로 심의했고, 모든 업체를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선정 업체된 업체는 농축산물 분야 수원농협경제사업장(정다미), 수원화성오산 축산업협동조합(한우 세트)이고, 가공식품 분야는 곱들협동조합(수원화성 참기름·들기름) ▲㈜남문통닭(수원왕갈비통닭) ▲㈜노스모크 위드아웃 파이어(커피 박스) ▲㈜마음샘(차·커피) ▲수원양조협동조합(행궁동이) ▲수원화



수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수원시 제공

성빵 ▲㈜일공일오킴퍼니(과자) ▲행궁다과(수원약과) 등 8개 업체가 선정됐다.

또한 캐릭터 상품 분야는 ㈜동네형(열쇠고리), ㈜로컬러(핸드워머쿠션·인형·배지 등)이고, 공예품 분야는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 행궁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수원화성성과 시계)을 선정했다.

원데이클래스 분야 선정업체는 ▲㈜더즐거운교육(렛츠고 수원화성프로그램 등) ▲도르르 도자공방(정조능행차 티셔츠 만들기) ▲㈜아트블랑크(엽서그림 만들기 등) ▲㈜일공일오킴퍼니(케이크 만들기) ▲행궁다과(김수영 우리음식문화연구원, 떡만들기 체험) ▲사단

법인 공예문화협회(나만의 관광기념품 만들기) 등이다.

이와 별도로 ‘스포츠 시즌권’(수원 프로스포츠팀-축구·야구·농구·배구), ‘수원 수목원 식재, 기부자 표창 부착’ 등 경쟁이 필요 없는 답례품목 2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2월 중 선정된 답례품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부자들에게 선정업체의 답례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답례품 업체 선정이 수원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할 때 많은 업체가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철 기자

“늘봄학교 시범校 조속히 선정해 달라”

교육부, 전국 17개 교육청과 영상회의
경기 80곳, 인천 20곳 등 운영 예정
“입학 초 에듀케어 준비에 만전” 당부

교육부는 오는 3월 시행되는 늘봄학교 운영에 앞서 시범 교육청들에게 관내 운영학교 선정과 입학 초 에듀케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상운 교육부 차관은 29일 오후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시범교육청에서는 학교 규모, 도시와 농어촌 등 여건을 감안해 다양한 모델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범학교를 조속히 선정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차관과 부교육감들은 다음 달 초까지 5개 시도교육청에서 200개 초등학교를 선정, 3월 신학기부터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시범 운영 대상 학교는 앞서 알려진 대로 경기 80곳, 경북과 전남 각 40곳, 대전과 인천 각 20곳이다.



장상운 교육부 차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3월, 늦어도 2학기부터 돌봄교실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초1 신입생에게 특화된 돌봄과 방과 후 교육인 ‘에듀케어’를 운영한다.

장 차관은 “학교·교원의 업무 경감을 위해 방과후·늘봄센터 인력 배치와 현장 지원에 힘써달라”면서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학부모, 교원,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관련 주체와 지속적 소통·현장 지원 강화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해림 기자

소방헬기, 지난해 6493차례 출동해 2239명 구조

소방청, 겨울철 등산 낙상사고 주의 당부
하객 등 응급상황 대비 물품 준비 강조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등산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해 산악 구조를 위한 소방헬기 출동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현장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하고 있는 소방헬기. 소방청 제공

소방헬기 출동 건수가 증가하면서 소방청이 겨울철 등산 낙상사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등산 낙상사고가 자주 발생해 산악 구조를 위한 소방헬기 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일 경북 문경 조령산 추락사고, 24일 충북 옥천 장령산 조난사고, 25일 강원 횡성 봉북산 조난사고 및 강원 태백산 사진촬영 중 부상사고가 발생해 소방헬기가 출동했다.

실제 소방헬기 출동 건수와 소방헬기로 구조한 인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방헬기 출동 건수는 6493차례로 2021년 5669건보다 14.6% 증가했고, 구

조한 인원도 2239명으로 2021년 2191명보다 2.2% 늘었다.

출동 유형별로는 구조·구급 출동이 2610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 2026건(31.2%), 정비시험 873건(13.4%), 산불 진화 799건(12.3%), 화재 출동 124건(1.9%), 순찰 등 61건(1%) 순이다.

이 중 구조·구급 출동은 등산 등 야외 나들이객이 증가하는 10월과 9월 5월 순으로 자주 출동했으며 하루 평균 7번 출동해 6명, 총 2239명을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 관계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등산화 및 아이젠 착용, 조난에 대비한 손전등, 비닐텐트, 하객, 여유분의 휴대전화 배터리 등을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박진석 기자

제7대 김범식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 취임

“더 발전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김범식 금곡동 주민자치회장이 제7대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장으로 취임했다.

지난 27일 시청 대강당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한 김범식 회장은 지난 1월 5일 수원시 주민자치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선출됐다.

수원시 주민자치회는 2013년 송죽동·행궁동이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44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다.

김범식 회장은 취임사에서 “수원시 주민

자치회를 잘 끌어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전임 회장이 잘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저를 믿고 주민자치협의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각 동 주민자치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주민자치협의회가 수원을 새롭게 하고, 시민을 빛나게 할 주역이 돼 달라”며 “빛나는 시민과 함께 새로운 특례시를 만들어가는데 주민자치협의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영철 기자

해물

가득

통통이

통통이

전자레인지 6분OK

대원찬

MAKE A FOOD CULTURE

해물 가득 통통이

340g (100kcal)

해물 가득 통통이

340g (100kcal)

해물 가득 통통이

340g (100kcal)

주식회사

신도리코

대표전화 (031) 247-1372~3

H.P 010-7383-1372

영업안내

- 컬러 디지털 복사기[임대·판매·A/S]
- 3D 프린트 판매
- 전산소모품

디지털 복사기 임대·판매

유지보수

서비스 전문업체